

4월 지역 실업급여 714억 역대 최대...일자리 한파 현실화

전월比 광주 17.5%·전남 9.5% 늘어
제조업·건설업 2배 상승 등 악화 뚜렷
비자발적 이직 ↑ 새 정부 소비진작 시급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지역 고용 시장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기 불황에 따른 폐업, 도산, 인원 감축이 늘어난 가운데 실제 고용 지표 역시 악화되면서 일자리 한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355억원, 전남 지역은 약 3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광주는 17.5%, 전남은 9.5% 증가한 수치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실업급여 급증은 실제 고용 시장의 악

화와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3월 중 광주 지역 취업자 수(7만2천명)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천명 줄었고 이 감소폭은 전월(-1만4천명)보다 더 확대된 수치다. 실업률 역시 3.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1만2천명 감소했는데 특히 임금근로자가 2만3천명 줄어든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1만1천명 늘어 고용의 질 악화 우려를 낳았다. 전남의 실업률은 2.3%로 0.1%p 상승했다.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근로자 유형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증가했다.

광주 지역 임금근로자의 4월 지급액은 약 333억6천만원으로 3월(약 301억원)보다 약 17.5% 증가했다. 자영업자 지급액 역시 4천483만원에서 5천228만원으로 늘었다.

전남의 경우 임금근로자 지급액은 3월 326억

원에서 4월 357억원으로 31억원 가량 늘었고 자영업자 지급액은 2천623만원에서 3천369만원으로 올랐다.

이직 사유를 살펴보면 경기 불황의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주 지역의 경우 '폐업·도산'으로 인한 이직 건수는 3월 753건에서 4월 819건으로 늘었고 지급액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의 경우 건수는 7천530건에서 8천671건으로 지급액은 109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올랐다.

전남 역시 '폐업·도산' 이직 건수(650건→690건)와 지급액(9억1천만원→10억2천만원), '경영상 필요 및 불황' 이직 건수(489건→540건)와 지급액(6억7천만원→7억8천만원)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광주 지역의 산업별 현황은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4월 광주에서는 농업·임업·어업(1억1천만원→2억4천만원), 광업(3천700만원→8천200만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업급여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우 지급 건수는 2천840건에서 6천72건으로, 지급액은 44억8천만원에서 97억2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급 건수는 2천971건에서 6천274건으로, 지급액은 46억9천만원에서 99억3천만원으로 치솟으며 약 111% 증가했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27억7천만원→60억2천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17억2천만원→36억5천만원)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지급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전남 지역 역시 제조업(52억5천만원→57억2천만원), 건설업(69억2천만원→72억9천만원) 등 주요 업종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폐업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종일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이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을 늘려야 고용도 늘고 고용이 늘어나야 실업률이 낮아진다"며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보다 신산업을 발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처럼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의 육성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솔 기자



갑자기 오른 계란 가격 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날 30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구)의 도매가는 6천79원으로 지난해 동월 평균(5천239원)보다 16.0%(84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 /연합뉴스

여수기업사랑協 실무단, 지역 산업위기 극복 방안 모색

포항·경주 방문 우수 사례 벤치마킹
산업 다각화·경제 회복 전략 등 청취

여수상공회의소 기업사랑협의회 실무위원단은 3일 "최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방문해 산업위기 대응 전략, 미래산업 육성방안, 국제 행사 유치 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일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포항시는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한 대표 사례지역이며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 과정에서 관광·MICE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다.

여수기업사랑실무협의회는 두 도시를 찾아 관련 정책과 추진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실무위원단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 및 포항시정의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타지역에 입주했던 이차전지 핵심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과정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경주시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따른 특별 지원금으로 건립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전략과 MICE 산업 활성화 방안, 이를 통한 지역 경제 기여 활동을 점검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포항과 경주의 사례를 통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우수 기업 유치와 국제 행사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며 "향후 여수지역 경제 회복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주상의, 회원기업 대상 실무강좌 개최

4일·23일·30일 3차례 걸쳐

인사·세무·회계 전문가 강의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4일, 23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 대상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부가세 신고 절차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강의 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하는 노동법을 대응, 주요 지출증빙 관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인사·세무·회계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4일에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실무 강의'가 마련된다.

강의는 김우택 진성회계법인 이사를 초빙해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 강사는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주요내용 ▲과세표준과 세액(과세표준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 등)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각 과정별로 설명한다.

이어 23일에 개최되는 인사·노동강좌는 조현실 코리아노무법인의 책임노무사를 초빙해 ▲노동법의 기본사항 ▲임금계산과 관리방법 ▲산업재해 발생시 관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4시간에 걸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30일에는 지출증빙 실무를 주제로 하는 강의가 개최된다.

금융기관 VIP전담 상속·증여 절세전략 전문가인 오종원 회계사가 ▲일반경비 지출시 증빙 관리 방안 ▲원천징수 사례 해설 등의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시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업료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를 참고 또는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부가세 1기 확정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핵심 사항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엄마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간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

대표번호 :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 idolbom.go.kr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태블릿,TV,PC 모두를 위한 Type A,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CMYK